



# 국민연금관리공단 중국 증시 직접 투자 해외기관 자격(QFII) 획득

왕양비 연구원

■ 지난 1월 8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중국 증시 직접투자 해외기관 자격(QFII)을 취득했다고 발표했으며, 구체적인 투자시기 및 투자규모 등 세부사항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음.

-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는 중국이 해외투자기관에게 부여하는 위안화로의 증시투자 허가이며, 동 자격을 취득한 해외투자기관은 중국인 전용 증시인 A주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음.<sup>1)</sup>
- 국내시장에만 집중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10년 해외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으며, 해외투자 비중을 2010년 10%에서 2014년 25%로 확대시킬 예정임.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세계 4대 연금기관 중 최초로 QFII 자격을 획득한 기관이며, 위안화 표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는 중국외환관리국(SAFE)이 투자규모 상한을 설정한 후 정식 시작할 예정임.
  - 중국외환관리국은 해외기관의 투자규모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최근 신규 QFII 기관에게 허용한 투자규모는 기관 당 1억 달러에 불과함.

■ 2011년 5~10월 중국 외환당국이 핫머니 대량 유입 우려로 신규 QFII 기관에게 투자를 허용하지 않았고, 기존 QFII 기관에게도 추가 투자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최근 몇 달간의 해외자금 유출과 주식폭락으로 인해 QFII 기관에 투자를 허용하기 시작함.

- 2011년 10월 19일~12월 1일 중국외환관리국이 총 9.5억 달러의 QFII 투자한도를 7개의 신규 QFII 기관(각 1억 달러)과 3개의 기존 QFII 기관에게 허용해줬으며, 12월 21일까지 중국이 총 112개 해외투자기관에게(QFII 자격 취득사는121개) 216억 달러의 투자한도를 허용했음.

1) QFII 자격이 없는 해외투자기관이나 투자자는 외국인 전용증시, 즉, B주 증시에만 진입할 수 있으며, B주 증시는 중국기업이 발행하는 외환주만 거래되고 있는데, 2,000여개의 상장기업 중 108개 기업(2010년 기준)만이 B주를 발행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 이외 QFI 자격을 획득한 한국 투자기관은 미래에셋, 삼성투신운용, 한화투자신탁운용, 산업은행, 우리은행, 한국투자신탁운용, 동양자산운용, KB자산운용, KTB자산운용 등이 있으며,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자산의 다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QFI 자격 획득 신청을 제출했음.

(FINANCIAL TIMES, 아주경제 등, 1/9)